

# 담배연구의 최근 동향

## 이 동 육

### KT&G 중앙연구원

근년에 들어와서 다국적 대형 담배회사의 유해성 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와 미국의 포괄적 담배화해협약(MSA : Master Settlement Agreement), WHO의 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기본안에 대한 각국의 인준 등 흡연과 관련된 사회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다.

담배규제는 크게 국제기구에 의한 것과 국가별 규제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을 펴고있는 WHO의 경우 2003년 5월에 제정한 포괄적 담배규제 법안(FCTC)에 대하여 이미 수십 개 국가가 인준한 상태이며, 2005년부터는 실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가별로는 EU국가를 중심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2001년에 제정된 법안(EU Directive/37/EC)에 따라 규제의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경우는 MSA이후 다소 약화되었으나 FDA에 담배를 규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최근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현황 및 향후 예상되는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의 연구도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 먼저 농경, 병리분야는 TSNA를 비롯한 유해성분의 원천적 감소를 위한 육종, 건조 및 분자생물학적 연구와 이 물질의 체계적, 과학적 관리를 통한 clean tobacco 생산 및 확보방안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연기과학 부분은 기기적인 방법으로 실제 사람이 흡연하는 것과 같은 평가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이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연구과제로 되고 있고, 유해성 인정 이후 흡연이 실제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담배회사 자체의 open study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술분야의 연구는 기업기밀과 관련된 부분이라 정보공유가 어려우나, 권련지, 필터 등 재료품 분야의 연구를 유추해 볼 때 보다 덜 해로운 담배개발과 각종 규제에 부합하는 제품개발 연구가 가장 중요한 연구과제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 review에서는 흡연과 관련된 최근의 사회적 이슈와,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의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CORESTA, TSRC 등 관련 국제학술회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